

# “科學技術투자 GNP5% 수준까지 확대”

## 盧泰愚대통령 첫 과학기술振興會議 주재

### 基礎科學육성·尖端技術개발에 중점지원



◇盧泰愚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진흥회의의 광경.

盧泰愚대통령은 6월27일 각계인사 1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진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그 규모면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과학기술투자를 GNP의 5% 수준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盧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자금을 계속 늘려 나갈 것이며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나도록 금융·세제 등 각종 지원시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

에 기초과학육성과 첨단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확대 등 각별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기술개발은 정부의 시책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으며 기술개발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기업 스스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투자,

인력양성 등 기술우위의 경영전략을 펴나감으로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거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창의적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법령이나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盧대통령은 『과학기술의 기반이 튼튼해지려면 모든 국민이 과학을 생활화해야 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고와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國家 지원 發展전략 모색

### 靑瓦臺서, 제 1 회 과학기술진흥회의의 開催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과학기술진흥회의가 盧泰愚대통령을 비롯 姜英勳국무총리, 柳峻相국회경과위원장,

李祥義과학기술처장관 등 국회·행정부인사, 朴泰源과총회장 등 학계·연구계·산업계·언론계 등 관계인사 1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7일 청와대 영

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서울대 金璟東교수(사회학)의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과기처가 마련한 「과학기술 미래, 그리고 우리의 국토」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金璟東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첨단과학기술이 무기화되는 국제화시대에 대처하고 육구분출·원화절상등으로 시



〈金璟東교수〉

련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길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향상뿐」이라고 전제,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기업·정부 모두가 일관성있게 과학기술혁신 극대

화에 힘을 모아 강화된 과학기술진흥체제를 구축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가적인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각계대표들은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획기적인 확대, 기초과학의 활성화, 과학기술투자확대, 과학기술진흥기금설치, 과학화운동의 전개, 과학기술행정기관의 위상정립등을 강조했다.

## 제2차 科學기술諮問회의 開催

### 分科委구성 및 위원장 選任

#### 과학기술 現況파악후 運營방향 모색키로

大統領에 대한 정책자문기구로 발족한 大統領과학기술諮問會議가 6월21일 학·예술원에서 2차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자문회의 자체의 位相정립을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과학기술진흥에 위한 국가발전이라는 대전제하에 창설된 자문회의는 국정운영방향을 과학기술주도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설치된 것이므로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현황파악후 이에 맞추어 자문회의의 구체적인 기능과 과제, 운영방향에 대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정상 운영체제 및 조직을 완비했는데 분과위원장으로서는 ▲과학기술혁신의 기본정책과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제1분과위원회는 鄭根謨위원이, ▲과학기술과 경제·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제2분과위원회는 李龍兌위원, ▲과학기술과 사회, 교육문화, 정치외교, 안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제3분과위원회는 權泰完위원이 각각 피선됐다.

이날 구성된 3개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장 = 鄭根謨 ▲위원 = 金相廈 金永旭 金鎮炫 朴相大 申泰煥 吳明 丁明植 趙完圭(위원장) 蔡永福

◇제2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 李龍兌 ▲위원 = 金塚謙 朴煥植 朴益洙 劉彰順 全武植 趙鮮雄 趙鏞涉 崔鍾賢 崔亨燮

◇제3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 權泰完 ▲위원 = 權森赫 金善弘 金聖鎮 金始中 金安濟 朴榮浩, 徐英勳, 李景瑞, 鄭義淑

### 科技處 人事

▲전자연구조정관 張景喆  
▲동력자원연구조정관 宋鈺煥  
▲대덕단지관리소장 李相泰  
▲광주지방기상대장 朴貞煥  
이상 3급승진 ▲감사관 徐正萬  
▲정책기획관 柳熙烈 ▲기술정책관 韓基益 ▲과학기술처 劉旭鍾 이상 3급전보<이상 7월11일자>

# 光州첨단산업단지에 7천억 투입

## 내년부터, 精密機械 등 집중유치

政府는 西南圈의 첨단산업기술 중심지가 될 光州尖端産業 연구단지 조성에 90년부터 오는 2천1년까지 총규모 7천억원 을 투입키로 했다.

이 광주첨단산업단지는 광주동북쪽 三所·本村里일원의 5백70만평규모에 정밀기계·정밀화학·정보산업·생명공학등의 첨단연구시설이 집중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7월11일 정부제1청사 회의실에서 光州첨단연구단지 관계부처차관회의에 상정된 「光州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조성추진대책안」에 의하면 내년에 4백50억원을 들여 실시설계·부지매입과 함께 공사에 착수하고 91년부터 95년까지 3천5백40억원으로 부지매입 완료 및 기반시설을 건설하며 96년부터 2천1년까지 관련기관 건설입주에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 대책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法的 뒷받침을 위한 立法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광주첨단산업연구단지조성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에 상정, 정부공식결정으로 공포키로 했다.

### 核燃料 공동개발

韓·加 공동조정위원회 합의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次世代

중수형핵연료개발 공동연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금년중에 한국에너지연구소와 캐나다원자력공사간에 사전 타당성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6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서 열린 韓·캐나다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핵연료 개발공동연구외에 현재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캔두원자로 설계사업에 한국에너지연구소

와 韓電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는 등 양국간의 원자력사업분야 협력방안에 합의했다.

동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가압중수로형원자로의 핵주기공급계통설계기술 자립을 위해 동분야 연수과정에 강사등을 파견키로 했다.

또 캐나다로 부터 도입된 핵물질을 서유럽국가를 비롯 미국, 일본등 제3국에 이전할 경우 캐나다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재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 地域共同 연구기기·문헌센터設置

### 해당지역 大學, 尖端장비 공동활용토록

科學技術處는 대학의 연구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12개 지역에 지역공동 연구기기및 문헌센터를 설치, 해당지역의 대학들이 공동으로 연구장비와 학술정보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科技處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여건을 보완하기위해 전국을 12개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한개대학씩을 선정, 센터를 설치하고 이들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 연구집단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처는 내년까지 한개센터당 80여억원씩 9백

72억원을 투입, 핵자기공명장치를 비롯, 고배율 현미경등 고가의 연구용장비를 구입·비치하고 각종 학술지 2백여종을 구비하는 한편 컴퓨터를 이용해 세계의 첨단학술정보를 교류하는 학술정보망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大德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의 지역별 분소형태로 운영될 지역공동연구기기및 문헌센터는 최근 서울대에 처음으로 설치됐는데 앞으로 서울지역소재 대학들이 기초과학연구에 필수적인 고가의 첨단실험장비나 전문학술지등을 공동으로 활용케 된다.

## 주름형 人工血管 개발

### 化學研 李海邦박사팀, 폴리에스터섬유 이용

高分子화합물인 폴리에스터섬유를 이용한 주름형 人工血管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韓國化學연구소 李海邦박사팀이 최근 개발한 인공혈관은 고분자 인공장기의 가장 큰 문제점인 혈액 및 생체적합성을 해결, 생체거부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며 혈액응고에 의한 혈관의 막힘이 없어 의용재료기술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주름형으로 끊임없는 수축팽창으로 혈관내를 상당한 압력을 받으며 흐르는 유연성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동물실험을 통해 외국인공혈관과 성능비교실험중인 인공혈관은 구경이 11~13mm, 두께 2백~2백50미크론의 대구경인데 혈관내 세포배양기술이 확립됨으로써 소구경 혈관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電子감응식 제어장치

#### KIST연구진 開發

빛길이나 눈길등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바퀴가 걸돌아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電子感應式 제어장치가 국내에서 개발돼 國産化를 앞당기게 되었다.

韓國과학기술연구원 CAD/CAM 연구실 洪芸善박사는 최근 전자감응식 안전제동장치(ADS)를 개발, 빛길이나 눈길

등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바퀴가 걸돌아 그대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고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발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 87년10월 연구에 착수해 이번에 개발된 전자감응식안전제동장치는 노면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미끄러운 도로에서 두바퀴에 전해지는 마찰력이 서로 달라 바퀴가 걸도는 이른바 Locking 현상을 방지, 차가 한쪽 방향으로 급회전하는 것을 막아 준다.

### 감마 인터페론 開發

#### 력키중앙연구소

癌 등 악성종양치료에 효과

가 커 미래의 新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감마인터페론이 국내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력키중앙연구소 유전공학연구팀(팀장 宋志龍)은 지난 84년부터 력키의 美國현지 연구법인인 력키바이오텍스社(팀장 曹重明)와 공동개발에 착수, 총2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4년만에 연구를 끝내고 국내 6개대학에서 임상실험을 실시, 탁월한 치료효과가 관명됨에 따라 量産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력키는 保社部の 의약품품목허가를 받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양산설비인 대규모 전자동 Bio-Reactor의 설치를 이미 끝냈다.

력키가 개발한 감마인터페론은 만성백혈병과 류머티스관절염, 각종 암, 성인병, AIDS 등에 다른 인터페론보다 효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 「特定야생動植物 해설집」發刊

環境廳은 최근 붉은점모시나비, 나도풍란등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92종의 동식물을 양서류·파충류·곤충류·식물류로 나눠 원색사진과 함께 소개한 「특정야생동식물 해설집」을 펴냈다.

특정야생동식물은 멸종위기에 있거나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

을 환경청이 지정, 포획과 채취를 금하도록 한 것으로 환경청은 지난 3월 붉은점모시나비, 나도풍란, 구렁이, 남생이, 금강초롱등 92종을 보호대상으로 첫지정, 고시했었다.

이 책은 멸종위기종, 감소추세종, 한국특산종, 희귀종등의 지정사유를 밝히고 삽화도 곁들여 모양, 식생, 상태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있다.

# 國立科學館長에 高明璨씨

## — 7월 1일부로 승진, 발령

政府는 국립과학관장에 高明璨과기처감사관(54세)을 7월 1일부로 승진 발령했다.

경북 軍威출신인 高관장은 중앙관상대 관리국장(79), 중앙기상대 기획국장(85)을 거쳐 과기처 정책기획관(86)과 감사관(87)등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중앙기상대 응용예보국장(物理技監)에 鄭乙永씨, 예보국장에 成學重씨를 7월1일자로 각각 발령했다.

### 부원장에 金殷泳박사

### KIST, 부설연구소장도 선임

韓國과학기술연구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부원장에 金殷泳고분자연구부 책임연구원을, 부설 과학기술정책평가센터소장에 金永佑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부회장을 각각 선임했다.

그리고 부설 해양연구소장에 朴炳權씨, 시스템공학센터소장에 成琦秀씨, 유전공학센터소장에 韓文熙씨등 현소장을 그대로 위임시켰다.

### 纖維教育강좌 개최

### 韓國纖維工學會

韓國纖維工學會(회장 宋石圭)는 6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과학기술회관의회의실에서 제7회 섬유교육강좌를 개최했다.

「니트의 하이테크」를 주제로 한 이번 강좌에서는 「편성물의 봉제기하학」 「컴퓨터 환편기의 구조와 선침방법」등 9개 강좌가 강의됐다.

### 氣象衛星 수신장비 가동

### 氣象臺, 세계 12번째 설치

中央氣象台(대장 朴容大)는 6월20일 李祥羲과기처장관, 柳峻相국회경과위원장등 관계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氣象衛星수신장비의 가동식을 가졌다.

위성수신방식이 금년부터 변경되어 구 수신장비로는 수신 및 영상자료 처리가 불가능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짐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기상위성 수신·분석시스템(MESDAS : Meteorological Satellite Data Analysis System)을 도입, 이날 가동식을 가진 것.

이 시스템은 美貨 3백57만달러의 캐나다 MDA社 제품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설치된 최신 장비이다.

이 장비는 H/W부분에 안테나, 수신기, 컴퓨터, 영상분석기 등으로 구성되고 S/W는 기상 분석, 영상분석, 해양·환경분석 기능등을 갖추고 있어 과거에는 매일 구름사진을 1종 24매 생산하던 것을 13종 69매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영상의 칼라 처리도 가능하게 되어 정확한 일기예보는 물론 대기과학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1 億년전 恐龍 모습 再現

### 부산대 金恒默교수, 東洋 처음으로

지난 73년 慶北 義城군 金城 금성면 부암재에서 발견된 데 이노시우스龍등 3종류이다.

金교수는 지난 73년이후 15년동안 의성과 고성등지에서 땅에 살았던 恐龍의 모습이 재 발견, 수집한 공룡의 화석과 발자국등의 연구자료를 기초로 당시의 공룡모습을 해부학적 특징을 살려 지난해 3월부터 原圖를 그려 FRP 및 에폭시 재료를 사용해 15개월만에 실물크기 70대 1의 공룡 축소모형 3개를 제작, 공룡의 모습을 재현시켰다.

부산대 자연대 지질학과 金恒默교수가 복원·제작에 성공한 공룡은 경북의성군 금성면 탑리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의 공룡인 울트라龍과 慶南固城군 下二면 德明리 해안에서 발견된 이구아나龍과 경북의성군

# IUPAC 연차 심포지움 盛了

## 23개국 참가, 高分子관련논문 272편 발표

化學분야의 UN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순수응용화학연맹 (IUPAC) 연차심포지움이 6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23개국 2백50여명의 외국학자를 포함, 8백여명의 국내의 학자들이 참가한 이번 심포지움은 「기능성 고분자의 분자설계」라는 주제아래 최근 첨단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고분자분리막, 감광성 고분자, 의료(생체)용 고분자, 전기특성고분자등 각종 기능성고분자에 대한 최신 연구논문 272편(포스터발표 52편포함)이 발표됐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특히 230편의 고분자관련 논문을 발표할바 있는 「R.C 술츠」교수(서독 마인츠大)가 「新고분자의 합성방법」을, 그리고 고분자형성에 관련된 50개의 특허를 획득하고 325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O 보글」교수(美 폴리테크大)가 「기능성고분자설계」를 소개, 관심을 모았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IUPAC는 영국 옥스퍼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순수학술단체로 현재 44개국의 1천5백여명의 화학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이 연맹은 무기화학등 7개위원회 산하에 32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종화학물의 命名法·용어·단위분자량등 화학적

사항에 관한 규제 및 표준화사업, WHO·FAO·UNESCO·ISO(국제표준기구) 등 국제기구의 화학분야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 國家標準制度 워크숍

### 標準研 12개국기술자 초청

韓國標準연구소(소장 李忠熙)는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일곱번째로 東南아시아, 中南美, 中東지역 12개국 과학기술자 12명을 초청하여 6월15일부터 28일까지 “國家標準制度和精密測定워크숍”을 개최했다.

韓國科學財團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의 對外技術供與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開發途上國에 이전함으로써 技術協力관계를 확대, 강화하고 海外資源의 확보, 수출여건조성 및 기술을 앞세운 대외경제진출의 기반을 조성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외교활동을 간접지원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체계를 소개하고 특히 길이, 溫度 및 濕度측정표준분야에 관한 집중적인 강의와 실험실습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이 워크숍에 참가한 국가와 과학기술자는 총 23개국 83명이다.

### 優秀 연구센터 운영

### 自然系 대학내 설치

韓國科學財團(이사장 鄭根謨)은 기초연구 발전과 대학연구 활성화의 구심체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優秀연구센터」를 自然系 석·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에 설치, 운영키로 하고 7월중에 신청을 받아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및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재단은 전국을 하나의 研究圈域으로 하여 핵심연구계열별로 설치하고 대학 및 관련기관의 참여범위를 확대, 국내의 다양한 기초연구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대학의 전통, 지역특성등 대학내외의 잠재적 발전요소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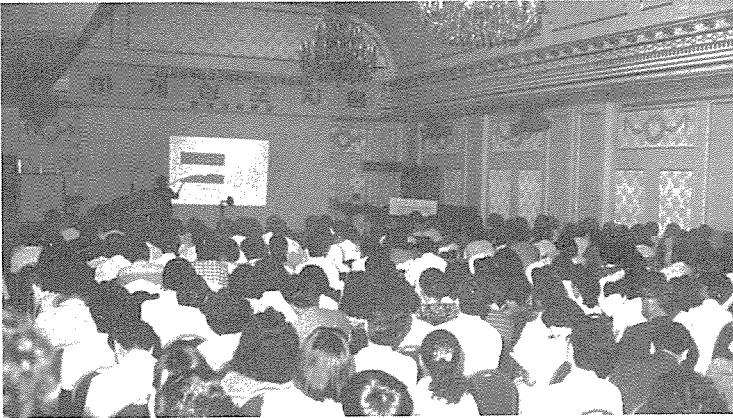
또한 이 센터에 대한 공공투자자는 Seed Money, Matching Fund의 성격으로 지원키로 하고 연구센터별로 자율적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독립채산식 예산회계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새로운 이론정립 및 새로운 현상의 심층연구를 연구방향으로 하는 과학연구센터와 연구·교육과 산업발전에 연계된 기초기술연구를 연구방향으로 하는 공학연구센터로 구분 설치·육성된다.

# '89學術會議 夏季 심포지움 盛了

7월 5~6일 호텔 롯데월드서

「生命科學」 등 5개분과서 最新논문 65편 발표



韓國科學기술단체 총연합회 가 주최한 '89 國內外 한국과학기술자學術會議夏季 심포지움이 7월5~6일 양일간 잠실 호텔 롯데월드 3층회의실에서 열렸다.

國內外 한국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國家특정연구 과제와 연계된 최신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첨단 및 취약기술 개발과 함께 기초과학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은 ▲수학·통계학분과를 비롯 ▲물리학 ▲화학·화공학 ▲금속공학 ▲생명과학분과등 5개분과로 진행됐다.

특히 ▲수학·통계학분과는 「비선형해석학」 「실현계획법의 이론과 응용」 ▲물리학분과는 「방사광」 「중이온 가속기과학」

▲화학·화학공학분과는 「분자구조 및 분광학」 「전기전도성 폴리머과학」 ▲금속공학분과는 「내식재료」 「희유금속 활용기술」 ▲생명과학분과는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 「Bio-Reactor 및 신물질창출」등을 과제로 하여 캐나다 사스카추완大 辛容武교수등 미국, 캐나다등지



◇국내외발표자, 좌장, 분과위원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움協議會관경。

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과학기술자 15명과 국내학자 50명 등 65명이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국내과학기술자 1천여명이 참석, 관련정보를 교환했다.

한편 5일 오후에는 심포지움에 참석한 국내의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리셉션이 李祥羲과학기술처장관, 朴泰源과총회장 등 관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자리에서 朴과총회장은 人事말을 통해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 이 학술회의는 해를 거듭할 수록 많을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전제하고 『특히 재외한국과학기술자들의 국내유치창구로서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첨단 과학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朴회장은 『특히 해외동포 과학기술자들은 학술발표 뿐만아니라 관련기관의 세미나, 간담회, 기술지도등 개별활동을 통하여

## 과학기술계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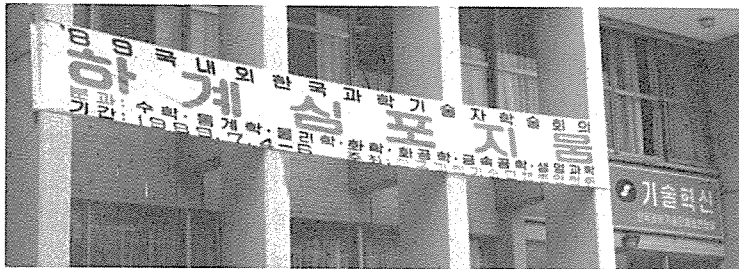
◇朴泰源 科總회장 주최로 열린 축하리셉션에서 李祥羲과기처장관이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母國의 과학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과학기술자들과 최신정보교환을 통하여 과학입국 기술자립의 터전을 마련하는데에도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李과기처장관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연구개발에 전력해온 국내 과학기술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母國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힘써온 해외동포 과학기술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개최에 못지않게 국내의 과학기술자들이 협동·협력하여 세계 과학기술선진국 4위대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에서在美과학자 朱東日박사(로렌스버클리실험소)는 「重이온粒子加速器科學」에 관한 논문을 통해 주기율표위에 가장 가벼운 수소원자에서부터 가장 무거

운 우라늄원자까지의 핵-즉,



지구상의 아무 핵이건 핵입자당 약 20억볼트까지 가속시키는 유일한 입자가속기인 Bevalac 이라는 중이온가속기를 소개, 관심을 끌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버클리)부속 로렌스버클리실험소에 설치되어 있는 이 중이온가속기는 1974년에 Super HILAC 과 Bevatron을 연결시켜 완성한 가속기로써 이 가속기를 이용하여 핵물리학 연구는 물론 원자물리, 우주물리, 방사선생물학 및 치료방사의학등의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朱박사는 지금 일본, 서독, EC, 소련등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중이온입자가속기를 건립 또는 구상중에 있다고 밝히고 科學立國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중이온입자가속기를 건립하는 것이 바로 세계 기술선진국들의 과학수준을 쫓아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鄭助英부회장, 學會로 부터 감사패 받아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鄭助英상임부회장이 韓國氣象學會로 부터 학회의 업무협조 및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7월11일 金正禹기상학회회장이 科總을 방문, 鄭상임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직접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작물학회

韓國作物學會는 5월27일 강원대에서 제27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신입회장에 黃鍾奎교수(전북대 농대교수), 부회장에는 李弘和교수(서울대농대)등 9명을 각각 선출하고 감사 및 총무이사와 편집이사를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회칙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전임 부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추대키로 했으며 종신회원제는 폐지키로 했다.

또한 오는 92년 10월에 창립 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키로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심포지움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와 함께 실시된 춘계학술발표회에선 수도부문등 3개부문에서 「쌀 gel Consistency의 품종 및 환경변이」등 38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한국화학공학회

韓國化學工學會 粉體工學부문위원회는 日本粉體工學會와 함께 제3회 韓·日粉體工學세미나를 오는 8월 9~11일 3일

간 구미시 금오산관광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분체의 혼합과 형성」을 주제로 선정, 분체공학의 기초이론으로부터 실처리공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까지 폭넓게 토의하고 특히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粉粒體의 조립에 관한 첨단기술의 개발동향을 다룸으로써 微粉體의 복합기능화처리에 관한 최신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선 영남대 화공과 姜錫浩교수의 「분체 복합기술의 현황」 日 大阪府立大 화공과 宮南 啓교수의 「기능성 복합재료제조프로세스에 있어서 혼합·混練」등 4편의 특별강연과 「고속攪拌조립법에 의한 생약분말의 조립(崔堉植 / 부산대재약학과교수)」 「유동층에 있어서 분립체의 응집(寺下啓次郎 / 大阪府立大교수)」등 모두 15명이 발표를 했다.

한국생물공학회

韓國生物工學會(회장 陸榮一)는 오는 1990년 5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서울대학교에서 제2회 아시아-오세아니아 生物工學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참가희망자의 예비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생물공학회 뿐만아니라 한국미생물학회, 서울대유전공학연구소와 미국,

일본, 중국, 자유중국의 관련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교부, 과기처, 과총등 관련기관 후원으로 열리는 대규모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학술대회에서는 ▲ Bioreactors ▲Plant Cell Technology ▲Animal Cell Technology ▲Separation and Purification ▲Novel Biologically Active Compounds ▲Wastewater Treatment ▲Biomass and Bioenergy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Biopolymer Production ▲Enzyme Technology ▲Fermentation 등 11개분야에서 최신 연구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품질관리학회

韓國品質管理學會(회장 黃義徹)가 中國품질관리학회와 공동주최하는 제3회 韓·中품질관리심포지움이 7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울산 다이아몬드호텔 및 울산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움은 13일은 학술 및 현장사례발표, 14~15일은 산업시찰로 진행되는데 학술발표에선 「Networks 표현에 따른 품질평가검사」 「Quality Measurement - Linear Algebra Application」등 韓·中양국의 품질관리 전문가 9명의 발표와 함께 미원 TQC추진본부의 유영준씨등 9명의 현장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科總회원단체 7月 학술행사계획 일정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일자	장소
대한기계학회	손명환	학술연구발표회	7. 1~2	전북대학교
고려인삼학회	조영동	하계심포지움	7. 4	연세대학교
한국고무학회	김준수	하계고무기술세미나	7. 6~8	수안보상록호텔
한국가금학회	오세정	총회 및 학술발표회	7. 7	축산회관
한국생약학회	이인란	생약자원조사	7. 7~8	계룡산
한국어업기술학회	장지원	학회간 공동세미나	"	국립수산진흥원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웅	'89하계종합학술대회	"	조선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이철희	하계전문대학전산과교수세미나	7. 7~9	경주조선호텔
한국원예학회	전재기	하계 학술발표회	7. 8~9	대구대학교
한국통계학회	이재창	제6차 한·일공동 학술대회	7. 11~12	부산코모도호텔
대한예방의학회	김두희	전공의연수교육	7. 13~15	해인사
한국군사운영분석학회	황관영	2/4분기 세미나	"	국방연구원
한국임학회	박명규	하계총회 및 학술대회	7. 14	영남대학교
한국균학회	이형환	버섯채집회	7. 14~15	갑사(계룡산국립공원)
한국과학사학회	이찬	'89제3회 세미나	7. 15	서울대학교
한국축산학회	이강식	학술발표회	"	충북대학교
한국농업기계학회	최규홍	'89하계심포지움 및 총회	7. 20~22	서울대학교
한국식물분류학회	이우철	수리분류학	"	성균관대학교
한국통신학회	강창언	하계종합학술발표회	7. 21	영남대학교
대한전기학회	박영문	하계 학술대회	7. 21~22	전기연구소
대한기계학회	손명환	동력학 및 제어부문학술강연회	7. 22	기계공업진흥회관
한국화학공학회	김병진	하계특별심포지움	7. 23~25	제주프린스호텔
한국심리학회	서봉연	심리학방법론 특별연수회	7. 26~28	서울대학교
한국구조공학회	안두식	하계주물기술강연회	7. 28~29	조선대학교
대한체육학회	김종훈	하계 학술발표회	7. 27~28	동아대학교

한국자동차공학회

韓國自動車工學會(회장 兪炳澈) 춘계 학술대회가 7월23일 자동차공업회관강당에서 열려 「자동차용 냉연강판의 성형한계에 관한 연구」등 14편의 연재가 발표됐다.

이밖에도 「열전대를 이용한

과도 전파화염의 화염온도측정 연구」 「각 사이클의 연소속도 변화에 따른 녹킹발생시각분포」 등이 발표됐다.

독성학회·환경성  
돌연변이 발암원학회

韓國毒性學會와 韓國環境性突然變異發癌原學會는 6월3일

금년도 춘계심포지움을 국립보건의연구원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日本東京大 농학부 손동화박사와 美國 Case Western Reserve 대학교 임인경박사등 재외과학자 2명과 한국과학기술원 도평콘트롤센터 유재천박사등 국내전문가 4명등 모두 6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 대한암학회

大韓癌學會는 6월23일 대한 교육보험강당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제15회 학술대회를 열고 신입회장에 金鎮福교수(서울대의대·외과), 이사장은 金炳洙교수(연세의대·소아과), 부회장엔 戚毅根교수(서울의대·병리학)·金東集교수(가톨릭의대·내과)를 각각 선임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선 「급성백혈병치료의 실제(리처드 챔플린/UCLA)」등 2편의 특강, 「암연구의 최근진전」에 관한 심포지움과 「원발성 난관암에 대한 임상적고찰」등 5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 한국부식학회

韓國腐蝕學會(회장 南宗祐)는 오는 8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과학기술회관 2층회의실에서 제10회 腐蝕 및 防蝕강습회를 개최한다.

현재 산업계 현장에서 부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식담당 기사는 물론 방식설계 및 시공업체의 엔지니어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강습회는 점차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식 문제와 방식대책에 관한 관계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현장 사례발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습회에선 부식의 원리에서부터 부식의 유형,

내식재료의 선택, 냉각수관리, 전기방식, 방식도장, 내식용금속표면처리, 부식부위의 비파괴시험등이 강의될 예정이다.

### 한국고무학회

韓國고무學會(회장 金駿洙)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忠北 中原郡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제20회 하계 고무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생산자동화와 고무공업(金滄翰/동아대교수)」 「기업의 영속성(宋在文 /〈주〉낫소대표이사)」 「특허정보활용 및 고무분야기술동향(權東勇/특허청 심판관실과장)」등 9편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편 동학회는 이에앞서 5월 26~27일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5층강당에서 금년도 제1차 고무기술기초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천연고무」를 비롯 「고무의 구조 및 특성」 「배합설계」 「유기배합제」 「무기배합제」 「가공기술」 「시험방법」등이 강의됐다.

### 대한기계학회

大韓機械學會(회장 孫明煥) 금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공장견학회, 기계관련제품 기기전시회가 6월29~7월1일 3일간 열렸다.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2일

간 실시된 춘계학술대회에선 한국과학기술대 초빙교수인 강철희박사의 「2천년대를 향하는 생산공학」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과 「재료 및 파괴부문」 「생산공학 및 산업기계부문」등 10개부문에서 「재질열화가 표면균열 진전에 미치는 영향과 수명예측에 관한 연구」등 188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이와함께 「CAD/CAM 기술 및 사례」 「재료 성형공정의 해석과 설계」 「대체에너지에 관한 연구현황과 방향」등 3개 주제로 워크숍이 열려 10편의 연재가 발표되었다.

### 대한공업교육학회

大韓工業教育學會(회장 洪元杓)는 6월24일 충남대공대 교수회의실에서 금년도 제1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중등학교 컴퓨터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발표회에선 「컴퓨터교육, 왜 관심을 가져야 하나(이재원/충남대 기술교육과교수)」 「우리나라 컴퓨터교육의 전망(오진석/교육개발원 컴퓨터교육센터소장)」 「중학교에서의 컴퓨터교육의 과제(김세영/영등포중학교 기술과교사)」 「고등학교에서의 컴퓨터교육의 과제(이정오/자양고교 기술과교사)」 「컴퓨터교육에 대비한 교사연수(김학동/충남고교 기술과교사)」등 5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